

지구촌 평화 기원 연등 광화문 밝힐 수 있도록 하루하루 ‘구슬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②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연등회 보존위원회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게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봉축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 축제의 중심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있다.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사무실을 찾았다. 이날 사무실에는 봉축 관련 문의를 하러온 스님과 재가불

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연등회’. 연등회는 매년 200여개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축제로 성장해 해마다 참가자 수도 늘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회가 특히 힘을 기울이는 부분이 전통등의 계승이다. 연등행렬을 위해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등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연등회의 자발적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봉축행사 기간 동안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도 함께 열려 더욱 성대하고 뜻 깊게 치러질 예정이다. 박상희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특별히 기원대회와 함께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수십 만개의 연등이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힐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연등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22일 만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 보존위원회 실무자들이 연꽃등을 선보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사진은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신도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 출범식에서 글자 모형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

7대 종단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

범종교인 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 출범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가 지난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공존과 화합을 위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이와 함께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소속 신도들의 범종교인 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본부도 이날 출범식 및 임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 4회를 맞는 이웃종교화합대회는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7월과 8월 각 종단 시설에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공감대를 높이는 ‘이웃종교스테이’, 10월 전국 종교인들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는 ‘전국종교인화합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답게 살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만큼 7대 종단 소속 신도들이 앞장서 ‘종교인담게’ ‘사회인담게’ ‘국민담게’ 등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한 종

교 간 대화와 화합 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며 “생명존중과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때일수록 다양한 종교가 서로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상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에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

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과 함께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는 본격적 출범으로 알리고 공동회장단 대표회장으로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을 선임했다. 중앙본부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7대 종단 신도 대표들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며 각 종단마다 10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실행위원을 두게 된다. 권길중 대표회장은 “각자 지니고 있는 믿음이나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작은결혼식 프로젝트’ 협약

조계종 복지재단, 가족문화 개선 ‘앞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작은결혼·가족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에 동참했다. 여성가족부와 주요 종교계가 공동협약의 실천의지를 선언하는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가장 소중한 대상인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참석했다. 이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이영훈 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이 참석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도 자리를 빛냈다.

협약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가족의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형성 등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에 기반을 둔 가족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골자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예비부부 예비부모 예비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 생명의 존엄 등을 주제로 교육을 운영하며 올바른 가족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협약 체결 이후 작은 결혼식 서명운동, 사찰의 작은 결혼식장 개방, 홍보활동 추진을 통해 가족문화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창립

21개 단체 사찰 참여
국가 인증기관으로 출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2월6일 발족한데 이어 3월3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가 공인 인증프로그램이나 인증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 ‘불교명상지도자협회’에서 개명한 단체다.

21개 단체 및 사찰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이날 법회를 통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스님을 회장으로 인준한 뒤 창립선언서 낭독, 정관 승인 등을 통해 정식 출범했다. 한국

명상지도자협회는 불교명상의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 명상포교 방안 마련, 명상지도인력 네트워크 형성, 지도인력 배출에 따른 교과 정비,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장 용타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명상지도자 상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늘 만나 진리를 탐마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국내의 유명기업들이 직원연수프로그램으로 명상을 도입하는 등 명상이 21세기 포교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명상포교의 새 지평과 희망을 써 내려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기 2559(2015)년
5. 15(금)~17(일)

연등행렬
5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
종로거리(동대문→광화문 광장)
※연등행렬이 끝난 후 광화문광장 세계평화 기원대회에 참가합니다.

전통문화마당
5월 17일 일요일 낮 12:00 ~ 오후 7:00
조계사 앞 길

대중교통 : 조계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 종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홈페이지 : www.연등회.kr/www.LLF.or.kr



燃燈會
YEON DEUNG HOE
연등회

월주스님
법호 판
첫 학교

지구촌공생회 30일
케냐 태공초교 준공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의 법호를 판 첫 학교가 아프리카 케냐에 탄생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오는 30일 케냐 카지아도 지역 울로레라 마을에서 울로레라 태공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한다.

이번 학교는 월주스님의 법호(태공)를 판 첫 교육시설이자 지구촌공생회의 50번째 학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 1억 5000만원의 학교 건립 기금도 월주스님의 ‘출가 60주년’을 기념해 상좌와 손상좌 스님, 제17교구본사 금강사 분·말사 주지 스님 및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 마련했다. 학교가 완공됨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칸 규모의 교사 신축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배움의 터전을 마련했다. 학교 완공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8학년까지 정규교육과정을 모두 개설해 마을 어린이들도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월주스님의 만해평화대상 상금 5000만원을 디딤돌로 세운 울마피테트 만해초교 준공식과 식수명판식도 오는 5월2일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는 교실과 교무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먼 통학거리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27일부터 5월4일까지 케냐지부를 시작하는 지구촌공생회 관계자들은 신규 식수 대상지도 함께 둘러본다. 마사이 부족의 빈곤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구축한 인키니 농장에서는 모터펌프 명판식을 진행한다. 또 2012년에 완공한 엔요노르 영화초교도 방문할 계획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